

2023년 평화드림 5만리 원정보고서

협성대학교 流河 김예인

일정 : 2023년 6월 25일(주일) ~ 7월 7일(금)

첫째 날(6/25) : 출정식(인천공항)

둘째 날(6/26) : 암스테르담 도착, 코리 텐 봄 하우스(할렘), 성 바보(Bavo) 교회, 안네 프랑크의 교회(안네 동상), 안네가 살던 집, 담 광장(찬양과 기도)

셋째 날(6/27) : 이준 열사 묘적지, 이준 열사 기념관(이준 열사가 머물렀던 호텔), 시청광장에서 찬양 및 서명운동, 빈넨호프(헤이그 특사가 들어가지 못했던 회의장),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1차 평화 학술 심포지움)

넷째 날(6/28) : 하노버 도착, 시장교회(Marktkirche), 하노버 중앙역 앞 찬양 및 서명운동, 에기디엔 교회, 베를린 도착

다섯째 날(6/29) : 유대인 박물관(베를린), 돔 교회(루터교회-예배), 돔 광장에서 찬양 및 서명운동, 한나 아른트 거리의 유대인 추모 유적,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찬양 및 서명운동, 유대인 추모 공원, 베를린 국회의사당, 베를린 백림교회

여섯째 날(6/30) : 비텐베르크 루터 기념교회(궁성교회, 평민교회-성 마리아 교회), 루터하우스(루터박물관), 시청 앞 광장(루터 동상, 멜랑히톤 동상), 라이프치히 도착

일곱째 날(7/1) : 성 토마스 교회(라이프치히), 교회 앞 찬양 및 서명운동, 성 니콜라이 교회, 교회 앞 찬양 및 서명운동, 드레스덴 도착, 찬양 및 서명운동, 성모교회

여덟째 날(7/2) : 주일예배(프라하 한인교회-말씀선포 : 은희곤 감독님), 플란티세 빌렉의 모세 동상, 슈톨프 슈타인(추모비), 프라하 탐방, 베들레헴 채플 옆 프로이트 동상, 베들레헴 채플, 카를대학교, 카를교

아홉째 날(7/3) : 크라쿠프 도착, 크라쿠프 광장에서 찬양 및 서명운동(1000명 서명 달성)

열째 날(7/4) : 오시비엠크 도착, 오시비엠크(아우슈비츠) 수용소(추모 박물관), 비엔나 도착

열한째 날(7/5) : 우크라이나 구호물품 전달식(프라하 한인교회 광용화 목사님),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크림트 작품 감상), 성 슈테판 대성당 앞 찬양 및 서명운동

열둘째 날(7/6) : 공항 도착,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두바이 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환승)

열셋째 날(7/7)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해단식

우리가 서로 만나면 잘 지냈냐는 의미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한다. 샬롬의 뜻은 ‘평화’를 의미하고, ‘평화’의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현재 “샬롬”이라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아직도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정전 70주년을 맞이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전쟁의 비극으로 인한 아픈 목소리들이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다. 이에 “평화드림 5만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며 본 여정을 준비했고, 먼 유럽 땅에서 2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전쟁의 총소리와 통곡 소리가 그치는 ‘샬롬의 상태’가 한반도와 세계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평화드림 5만리 평화원정대의 발자취는 결코 작지 않은 강한 발걸음이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준비과정부터 시작하여 2주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함

께 걸었던 순간순간 모두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여 전부를 세세하게 소개하고 싶지만, 그 내용과 의미들이 방대하여 다 펼치지 못하는 것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약소하게나마 나라별로 요약하고 정리하며 느끼고 생각한 바를 본 글에 담아보고자 한다. 부디 본 글이 2023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길고도 짧고, 짧고도 긴 여정 속에서 큰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작은 불씨를 붙인 평화원정대의 힘찬 함성소리를 생생히 기억하게 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필름 카메라 속 작은 필름이 되기를 원한다.

평화드림 5만리 평화원정대는 6월 25일 저녁 인천공항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유럽 5개국(네덜란드, 독일,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10개 도시를 다니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외쳤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We came from south Korea. Would you join us for our peace movement?”를 말했던 우리 32명 평화원정대원들의 조그마한 목소리들이 전 세계에 울리는 평화의 종소리에 작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란다.



먼저, 우리가 첫 발을 내딛은 곳은 네덜란드였다. 실제적인 여정의 첫날에 네덜란드에서 탐방을 시작하면서 코리 텐 봄 하우스와 성 바보(Bavo) 교회, 안네 프랑크의 교회와 살던 집을 가보고, 담 광장에서는 찬양과 기도도 하였다. 그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은 ‘코리 텐 봄’이라는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 제작자였다.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코리 텐 봄은 유대인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그녀의 가정은 나치의 매서운 눈길을 피할 수 있도록 유대인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행한 이 선한 삶은 이기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 옆에서 이웃이 고독사로 죽어가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는 것조차 벅차게 여기는 현 시대에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나부터가 먼저 ‘너’를 향한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온종일 ‘이준 열사’가 먼 이국땅인 네덜란드에 남겼던 뜨거운 눈물의 발자취들을 따라다녔다. 먼저는 이준 열사 묘역지에서 그를 기억하며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이준 열사가 머물렀던 호텔을 기념관으로 꾸민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는 헤이그 특사 사건과 이준 열사에 대한 강의를 기념관장님께 들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고, 진정한 교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음을 상기했다. 그리고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에서 열린 평화 학술 심포지움(1차)에서 서영석 교수님의 “헤이그 특사 파견과 이준의 평화, 정의 사상” 강의를 통해서 이준이 강력히 외쳤던 평화와 정의 사상, 그가 목 놓아 외친 ‘한국혼 부활론’이 그저 역사책의 일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하노버를 거쳐, 베를린,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드레스덴에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자국을 남겼다. 특별히 독일에서는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반성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를 위해 탐방 가이드를 해 주신 김정애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독일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특별한 국경일들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 한복판에 자신들의 감추고 싶은 치부인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계속된 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였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준다.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할 때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성숙한 내일의 아침을 열어갈 열쇠가 되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써 내려 갈 역사는 찬란할 것이다. 그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을 이룩한 한반도의 웃음소리와 그 영향으로 인해 밝아진 세계 평화의 숨소리가 하늘 가득 들려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세 번째로 우리 평화원정대가 향한 나라는 체코였다. 프라하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프라하 광장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평화서명을 받은 우리는 프라하 탐방을 시작했다. 탐방의 시작점은 얀 후스의 동상 앞, 바닥에 십자가가 새겨진 후스의 순교 현장이었다. 그 곳에서 곽용화 목사님을 통해 들은 체코의 기독교 인구가 현재 0.8%라는 사실은 내게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다. 목숨을 건 얀 후스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진리를 지켜가고, 진정한 복음을 외쳤던 그의 목소리가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들을 기억하는 바닥 위의 십자가들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밑에서 그저 관광을 위해 거쳐 지나가는 길바닥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오래 전, 후스의 종교개혁을 위한 강한 외침은 단지 체코의 관광 상품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가 흘렸던 진리를 향한 강렬하고도 뜨거운 피와 눈물이 다시 이 땅에 울리기를 소원한다.



그다음 우리가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도착한 나라는 폴란드였다.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는 마치 장마철에 먹구름을 가득 머금은 하늘처럼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한복판이었던 폴란드가 겪은 아픔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도 열심히 찬양과 평화서명 운동을 한 우리는 '평화지지서명 1000명 달성'이라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하고, 오시비엔침으로 향했다.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곳이 사실은 '오시비엔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아우슈비츠는 오시비엔침을 독일어로 발음한 것.) 그래서 나는 앞으로 '아우슈비츠'보다는 '오시비엔침'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부르기로 했다. 이곳에서 우리 원정대는 나치의 무서운 사상 아래에서 시들어간 유대인들의 아픔이 그대로 새겨져있는 오시비엔침 수용소(추모 박물관)를 갔다. 그 안에는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생각들이 만들어 낸 깊은 상처들이 여전히 눈물의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사진들과 물건들, 가스실과 화장터의 어둡고 탁한 공기는 가슴 한 켠을 아프게 두드렸다.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무서운가? 처음에는 그들의 잔인함에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젖다가 이내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향했다. 비엔나의 UN사무국에 그 동안 받은 평화 지지서명을 제출한 후에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찬양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우리 평화원정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감동으로 내게 남아 있다. 그리고 공항으로 떠나기 전, 우크라이나 구호물품을 전달하면서 느꼈던 벅찬 마음이 여전히 내 심장의 박동소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

약 2주 동안의 여정에 매듭을 지으면서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이 여정을 통해 느끼고 다짐한바, 다음 기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았다. 평화드림 5만리의 아름다운 여정은 정말 내가 일생 중 다시 해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고, 은혜였다. 이 여정을 통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듯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큰 도약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 로비에서 우경희 사모님께서 내게 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영향력(루터, 후스 등)의 파장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평화드림 5만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중요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기에 앞으로 평화 교육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다음 기수들에게는 기도도, 마음도, 체력도, 공부도 더 철저히 많이 준비하면 준비하는 것만큼 더욱 많은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싶다.

이렇게 귀한 여정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은희곤 감독님과 사모님, 유경동 교수님과 사모님, 서영석 교수님과 심자득 목사님, 조성현 목사님, 홍순계 감사님, 서나영 장로님, 김주현 간사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도 밝은 미소로 불평 없이 마지막까지 함께 여정을 걸어준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본 글의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평화, 돌아 올 내일

流河 김예인

어둔 밤을 몰아 낸
새벽의 태양이
온 하늘을 가득 메울 그 날

지치고 아픈 눈동자들의
쓰라린 눈물이
봄별 아래 행복한 웃음을
흘려보낼 그 날

다시 돌아 올 내일
살림, 전쟁의 소리가 그치는
평화의 그 날